



Market Index / 29일

코스피지수 ▼	3286.68 -15.21	코스닥지수 ▲	1022.52 +4.61	유가(WTI, 달러) ▼	72.91 -1.14	환율(원)	1USD 100¥	실매 1149.77 1038.40	팔매 1110.23 1002.70	1EUR 1372.15	실매 183.61	팔매 1318.61 166.31
---------	-------------------	---------	------------------	---------------	----------------	-------	--------------	--------------------------	--------------------------	-----------------	--------------	-------------------------

# 휴가철 맞아 공항 북적... “시간 넉넉히”

### 탑승수속 대기 길어 “출발 1시간 30분 전 도착해야” 성수기 제주노선 확대 계획에 관광객 더 늘어날 듯

“10분만 늦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놓쳤을 거예요.”

29일 오전 찾은 제주국제공항에는 저가항공사의 탑승수속 창구마다 길게는 20~30m의 줄이 이어졌다. 창구 인근에는 무인 발권기 셀프체크인이 설치돼 있었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제주에서 구매한 특산물 등 가지고온 짐을 불이기 위해 항공사의 탑승수속 창구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날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승객 한명이 항공사 탑승수속 창구를 이용해 짐을 불이고 항공권을 발급받은 뒤 국내선 탑승수속 카운터까지 가는 데 평균 1시간 넘게 소요됐다.

공항에서 만난 관광객 김모(28)씨는 “평일이어서 공항에는 주말보다 비교적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비행기 이륙시간 50분전에 도착했는데 항공사 탑승수속 창구의 대기줄이 너무 길어 깜짝 놀랐다”면서 “10분만 더 늦었다면 아마 집에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오늘은 평일이어서 그나마 덜한 것”이라며 “주말인 경우에는 항공사 탑승수속 창구와 더불어 국내선 탑승수속 카운터까지 긴 줄이 늘어지면 서 수속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공항 이용객 수는 총 949만2000여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752만6000여명) 대비 26%가량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항공기는 404편이 오르내렸고, 공급석은 7만6000석 가운데 6만2000여명이 이용해 탑승률은 82.0%를 기록했다. 공급석인

경우 전년 동기대비 15.5%, 탑승률은 6.9%를 기록했다.

국내선인 경우 이달들어 지난 27일까지 1만3035편이 운항해 217만1300명이 이용했는데, 이는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1만2121편, 223만2700명)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일부 항공사는 제주 노선 확대와 증편이 계획되어 있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비행기 이륙시간에 맞춰 탑승객들이 공항으로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예상치 않게 길어져 승

객들이 비행기에 아슬아슬하게 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 관계자는 “최근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어 출발 1시간 30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 탑승수속을 해야 비행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최근 여객 증가에 따라 탑승객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대합실 외부 환기 횃수를 확대 운영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사이판 노선 운항 재개 움직임 대한항공이 올 8월부터 괌 노선을 운항한다. 대한항공은 8월 5일 운항하는 인천-괌 노선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다. 8월부터 매주 목요일 주 1회 괌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사진은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모습. 연합뉴스

# 제주지역 경기 완전한 회복세

### 한국은행 제주본부 보고서 취업자 서비스·건설업 늘어

제주지역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취업자수가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9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부문별 동향에 따르면 지난 4~5월 중 도내 취업자수는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7000명이 늘어나면서 지난 1년간의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은 내국인 관광객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하면서 렌터카업, 도소매업 등의 회복세가 확대됐으며 숙박·음식점업 및 골프장업의 업황도 소폭 개선됐다.

농수축산업의 경우 농산물 출하액은 마늘 등 채소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출하량은 줄어들면서 보험세를 나타냈다.

제조업은 알코올음료는 관광객수 증가 및 외식 수요 확대에 힘입어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비금속광물제품도 전년도의 저저효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소비는 대형마트의 경우 소폭 개선세를 이어갔으나, 중소형마트는 외식 증가에 따른 식자재 구입 감소로 전반기에 비해 소폭 부진하면서 보험세를 보였다.

또 4~5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도 급등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4%가 증가해 오름세가 크게 확대됐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집에서 즐기는 제주음식 일문서 ‘호응’

제주관광공사는 내달 23일까지 일본인 대상 ‘집에서 즐기는 제주음식’을 테마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적인 관계 악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교류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과 공사에서는 일본 현지에서 자국 내 젊은 여성에게 인기 많은 인플루언서와 함께 ‘집에서 직접 만들어보는 제주 전통 디저

트 기름떡’과 ‘일본 한민타운에서 만나는 모닥치기’ 등의 체험 영상을 제작·공개하며 제주 음식문화를 활용한 제주 여행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제주 대표 간식을 활용해 만든 것을 인증하는 SNS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일본 MZ세대는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관심이 상당하다”며 “이들에게 제주문화, 체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제주 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내달부터 접수 약 300개사 지원... 혜택 다양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2일부터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중견기업의 제조혁신과 일터혁신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이 각

각 매년 100억원씩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2018~2020년) 동안 국내 중·중견기업 1443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약 3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는 삼성과 거래관계가 없는 중·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지원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6000만원 또는 1억원까

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소기업이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사업비를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참여 중·중견기업에게는 삼성전자 현직 전문가(200명)의 제조현장 혁신 활동 멘토링을 통한 대기업의 노하우 전수와 함께 판로 개척을 위한 스마트 비즈니스포 참가 등의 후속 연계사업도 지원된다.

한편 2020년 11월 중기중앙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한 486개사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기업 10곳 중 8곳 이상(86.4%)이 지원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얻게 된 구체적 성과로는 작업환경 개선(53.7%), 생산성 증가(40.9%), 품질 개선(31.7%) 등 순으로 응답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1~4)로 하면 된다. 이태윤기자

# 제주 기업대출 증가 규모 축소

제주지역 기업대출의 증가 규모가 축소된 반면 가계대출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4월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4월중 도내 금융기관의 여신은 전월 대비 2691억원 증가해 3월(2395억원) 증가폭이 확대됐다.

또 차입주제별 기업대출의 증가폭은 1139억원으로 전월 대비(2071억원)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가계대출의 증가폭(262억원→1384억원)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은 대기업의 시설자금 수요가 줄면서 증가규모가 축소됐고,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81억원 → -275억원)이 줄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지원, 공모주 청약에 따른 자금 수요 등으로 기타 가계대출(343억원 → 1659억원)이 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4월말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잔액은 31조6329억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1113억원→2847억원)이 확대됐다. 이태윤기자

##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비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문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의심심리 심의번호 2020-GN00079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